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월이 빠른것은 알고있었지만 선교지에 있으니 더욱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여름이겠지만 이곳은 본격적인 겨울이라 (낮에는 25 도정도고 아침엔 20 도정도) 새벽녘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곳에서 살다보니 20 도정도면 정말 춥게 느껴집니다. 요즘 한국은 많이 덥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이곳 날씨가 사람살기엔 최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가 안와서 모든 생물이 말라가고 농작물을 재배할수없으니 이곳 부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네요.

저희는 딸 결혼식으로 미국에 잘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갔어도 딱히 있을곳이 없어서 방을 어떻게 구하나 고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있을곳을 미리 준비해놓으셨습니다. 미국 애크론대학 김일운교수님댁에서 편하게 있다 왔습니다. 결혼식도 잘마쳤고 아이들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사왔습니다. 딸 결혼식과 더불어 이곳 교수확보를 위해 KOSTA 선교담당자와의 만남도 가졌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좋은 만남들을 가질수있었습니다.

딸 결혼식에서....세계에 흩어진 우리 온가족이 한곳에 모인 역사적인 날!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

6 월달에는 매년 열리는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가 탄자니아의 관광지인 아름다운 잔지바르섬에서 3 박 4 일동안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때에는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신 임현수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오셨었고 또 큰빛교회 청년들 17 명도 함께 와서 캐나다출신 선교사인 저희들한테는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방장님은 직접 팀을 이끌고 오셔서 3 박 4 일동안 한식을 만들어주시는등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고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임현수목사님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과의료팀이 오셔서 선교사님들 이빨도 치료해주었습니다. 이성구선교사 이빨도 땀질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빨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했던 정미라선교사는 의료팀이 한국에서 장비를 다 가져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치료를 못받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수있어서 감사했습니다.



UAUT 소식

UAUT 는 여름방학중입니다. 올새학기는 2 년째 접어드니 이번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것으로 보입니다. 방학중이지만 전학기 마무리와 또 새학기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또 탄자니아에서 5 월에 열린 교육박람회를 통해, UAUT 를 홍보하고 좋은학생을 데려오기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뛰었습니다. 교육박람회에서 UAUT 에 관심을 갖게된 70 여명의 학생들이 UAUT 를 방문했습니다. 좋은학생, 준비된 학생들이 등록할수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UAUT 선교사 파송교회에서 단기선교팀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많이들 들어와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것은 이번엔 미국과호주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UAUT 학생들에게 Intensive Course 를 가르칠 교수들이 들어와서 여름학기동안 현재 가르치고 있고 또 이번 새학기 Fall term 에 가르칠 몇몇의 교수들이 곧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들이 부족하여 늘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계심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공학관이 지금 건축중에있으며 공학관 건축을위해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봉사하고있으며 단기선교사님들이 잠시 머물수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계심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희는 순종이란 씨만 뿌리고 열심히 걱정?하는사이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며 감사하지만....무슨일이 생기면 또 걱정하는, 꼭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건축중인 공학관...



정미라선교사 사역

정미라선교사는 언어도 배우면서 현지유치원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던중에 필요한곳에서 사역을 할수있게 되어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한 동네라 학교를 갈수없는 아이들이 모인곳으로 현지인 선생 한명이 거의 50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곳입니다. 말은 유치원이지만 15 살짜리 큰아이도 있고 초등학교에 다녀야할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본적이 없는 아이들이죠. 굶고오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아침에 죽을 끓여 먹이고 있습니다. 책상도 없고 칠판도 없는 그야말로 긴 나무의자 4 개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진지합니다. 못배우는 아이들이 배우고싶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미국에서 책과 크레파스등 학용품을사가지고 왔고 칠판등 가르칠수있는 도구도 일단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필요한것이 너무많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위해 빵과 캔디를 매일 준비해가는데 정미라선교사가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은 "Good morning Teacher" 하며 모두 뛰어나와 반깁니다. 캔디가 반가운건지, 정미라선교사가 정말 그렇게 좋은건지....

모슬렘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바이블 스토리 (창세기부터 신약까지)를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가며 가르칩니다. 모슬렘아이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수 있다는것은 말로 표현할수 없이 너무 기쁜일입니다.



오늘은 에디라는 8 살짜리 사내아이 귀밑에 있는 굵은 종양을 보았습니다. 옆의 아이가 살짝 건드렸는데 울며 자지러져서 보니 귀바로 밑에 큰 혹이 있는데 굵아 부어있었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될것같았는데 정작 부모는 돈이없어 병원엘 못가고있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심란한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현지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에디집에 가보니 집엔 아무도 없어서 부모도 못만나보고 그냥 돌아왔지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다 뇌로 퍼지면 죽을수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병원이 워낙 열악하기도 하고 저희가 부담하기가 힘들정도로 병원비가 비싸서 저희도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병원에 가보는것이 최선일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사람이 너무많고 할일이 너무많은 이나라. 도울곳이 너무많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곳. 요즘은 추수할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하나님말씀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기도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 에디가 수술을 할수있는 여건이 생기고 또 건강해질수 있도록.
2. 이땅에 많은 장기/단기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에 동참할수있도록.
3. UAUT 대학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될수있도록. 새 학기때 좋은학생들이 많이 입학할수있도록.
4. 유치원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이 잘 양육될수있도록.
- 5.저희들 후원금이 원활히 잘 들어올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후원금이 모여져서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될수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후원단체나 개인후원자들의 재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있습니다.
6.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특히 정미라선교사는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7. 저희 막내아들이 단기선교로 이곳 탄자니아에 8 월초에 올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있도록.

후원정보

Tanzania (US dollar 를 어디서나 송금할때)

(탄자니아에 있는 은행의 외환업무를 매개해 주는 미국은행)

CITIBANK N.Y.

111, Wall Street

New York 10043 USA

(후원금을 받는 저희 탄자니아 구좌)

Exim Bank USD A/C

Exim Bank Swift: EXTNTZTZ

UNIV ID 370780 / Swift CITIUS33

Account Number: 0081023829, Account Holder's name: Sungkoo Lee/Mira Lee

Canada (수표나 현금으로 후원하실때)

Toronto Korean Bethel Evangelical Church

1155 College St. Toronto ON M6H 1B7

Pay to the order of: Toronto Korean Bethel Evangelical Church

(이성구/정미라 탄자니아 선교사앞)

한국

국민은행 331337-04-002245 (탄자니아대학교후원회: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앞)

4 월달부터 6 월달까지 기도와 더불어 물질로 후원해주신 여러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명단에 빠지신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캐나다성결선교회, 토론토 벤틀교회, 약수동 성결교회, 하늘소리 성결교회, 클리블랜드 한미 성결교회, 클리브랜드 나사렛 성결교회, 김경수, 이양옥, 심은정, 김미정, 한승준, 우순자, 김일운 (이진원), 이찬우, 박동욱(백선화), 김만복 (Christina Kim), 이청, 이영.